

2023 년 캄보디아 주간(9.2-9.8) 경제 동향

[경제]

■ 훈 마넷 총리, 기업 등록 절차 간소화 및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감면 시행 요청

- 훈 마넷 총리는 9.1(금) 파크마오시 봉제근로자들과의 만남 연설에서 온 뽀모니로앗 부총리 겸 경제재정부 장관에게 사업자 등록을 간소화하여 관련 비용을 줄이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감소 시켜줄 장기(4-5 년)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하면서 특히 관광분야에서 이를 시행하여 동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제고할 것을 꼭 쏘겐 관광부 장관에게 요청함.

(Khmer Times 9/4, 13 면)

■ 1-8 월, 앙코르왓 유적군 입장권 판매수익 2,300 만 달러

- 1-8 월간 앙코르 유적군의 입장권 판매수익은 약 2,300 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19% 증가함.
 - 입장권을 구매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498,513 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0% 증가
 - Top Sopheak 관광부 대변인은 항공편의 재개 및 신규 항공노선 개설로 관광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

(Khmer Times 9/5, 13 면)

■ 10 월 말, 카타르 항공 노선 재개

- 반 찐티(Vann Chanty) 민간항공청 항공운송 국장은 카타르 항공이 10.29 부터 도하-프놈펜간 항공편을 재개한다고 발표함.
 - 카타르 항공은 2013 년 2 월 도하-프놈펜간 직항 노선을 개설, 이후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2020 년 4 월 운항 잠정 중단

(Khmer Times 9/5, 1 면)

■ 1-7 월 對일본 수출 약 10 억 달러

- 일본무역진흥기구(JETRO)의 통계에 의하면 올해 1-7 월 캄보디아의 대 일본 수출액은 약 10.1 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4.3% 증가함.
 - 동기간 대일 수입액은 2.96 억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.2% 감소
 - 주요 수출품: 의류, 가방, 신발, 가구, 화장품, 종이, 가죽제품
 - 주요 수입품: 기계, 자동차, 전자제품, 가구, 식물, 플라스틱
 - 림헝(Lim Heng) 캄보디아상공회의소 부회장은 “현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)과 아세안-일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AJCEP)으로 인해 캄보디아의 대일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, 일본과의 FTA 가 체결될 경우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”고 말함.
 - 2022 년 캄-일 양자교역액 24.5 억 달러(대일 수출 19.3 억\$, 수입 5.15 억\$)

(Khmer Times 9/6, 14 면)

■ 캄 중앙은행, 통화 안정위해 9 월 중 5 천만 달러 경매 실시

- 캄 중앙은행(NBC)은 9 월 중 중 4 차례*에 걸쳐 5 천만 달러에 대한 외환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, 이와 관련하여 모든 은행, 금융 기관, 환전소 등 관련 기관들이 이에 대비할 것을 요청함.

* 9.6 - 10 백만\$, 9.8 - 15 백만\$, 9.13 - 10 백만\$, 9.15 - 15 백만\$

- 은행관계자들은 NBC 의 동 조치는 최근 달러 대비 현지 통화인 리엘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대한 NBC 의 조치로 판단

(Phnom Penh Post 9/6, 2 면)

■ 캄-필리핀 상공회의소, 협력 MOU 체결

- 캄보디아 상공회의소와 필리핀 상공회의소는 9.5(월) 제 43 차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, 훈 마넷 총리와 Fredinand Romuladez Marcos 필리핀 대통령의 주재로 양국의 농업 분야 협력 및 중소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.
(Phnom Penh Post 9/7, 3 면)

■ 중국, 대캄 투자 확대 의지 재확인

- 주캄 중국 대사관의 경제 및 무역 고문(Zhong Jie)는 쉐어 붓티(Chea Vuthy) 캄보디아투자위원회(CIB)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CDC 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국은 중국 투자자들의 전 분야에 걸친 대캄 투자 및 캄-중 양자무역의 규모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함.
 - 올해 1-7 월간 중국은 캄보디아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양자교역액은 작년 동기 대비 1.8% 증가한 70 억 달러(캄보디아의 대중 수출은 8 억 1,470 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6.2% 증가, 대중 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0.1% 증가한 60 억 달러 기록 - 54 억 달러 적자)
(Phnom Penh Post 9/8, 1 면)

■ 캄 정부의 이중과세방지협정(DTA) 현황

- 쯔 비볼 국세청장은 9.6(수) 열린 ‘2023 년 세금 포럼’ 관련 언론 인터뷰에서, “캄보디아는 다수의 국가들과 성공적으로 이중과세방지협정(DTA) 협상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”고 밝힘.
 - 캄보디아는 9 개국-싱가포르, 중국, 태국, 브루나이, 베트남, 인도네시아, 홍콩, 말레이시아, 한국-과 DTA 협정 체결. 현재 일본, 아랍에미리트, 필리핀, 미얀마, 라오스 등과 협상 논의 진행 중.
(Khmer Times 9/8, 15 면)

[대의 협력]

■ 코이카, 캄보디아와의 협력 20 주년

- 코이카는 9.1(금) 보도자료를 통해 2003 년 코이카 프놈펜 사무소를 설립하여 캄보디아와 협력한 지 20 주년이 되었으며 그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캄보디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고, 현재까지의 대캄 누적 지원액은 약 3 억 6,650 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힘.
 - 코이카와 캄보디아간 협력은 1991 년 한국 외교부를 통해 시작되었으며, 초기에 장비 지원에 중점을 두었던 지원은 역량강화 사업, 민관협력 프로그램, 국가별 파트너십 사업, 자원봉사파견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됨.
 - 한-캄 우호의 안과 센터와 이비인후과 센터를 포함한 뿌레야영두영 병원 건설 사업은 프놈펜시의 가장 상징적인 코이카 사업 중 하나이며, 그 외 약 3,500 명의 캄보디아 공무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통한 한국 연수·한국어 교육·보건·IT·태권도 등 다양한 분야의 900 여 명의 코이카 자원 봉사자 및 전문가 캄보디아 파견 등을 추진함.
(Phnom Penh Post 9/4, 5 면)

■ 일본, 지뢰제거 장비 기증

- Ly Thuch 캄보디아 지뢰 활동 및 피해자지원국(CMAA) 제 1 부국장은 9.5(화) 일본이 2025 년 지뢰없는 캄보디아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에 지뢰 제거 장비*를 기증했다고 발표함.

* 자동차(23 대) 및 부품, 오토바이(37 대) 및 부품, GPS 장치(54 대), 개인보호구(30 개),
지뢰탐지기(30 대), 노트북(75 개) 등
(Khmer Times 9/6, 6 면)